



#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James H. Kim Publisher  
Soo Ho Lee Editor

VOL. 4 NO. 5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MAY 1977



(꽃 가다 ; Flowery Hand-Carried Sedan <Wedding procession Scene > )

## 6월 6일 현충일

그들의 이름은 잊혀지고 있겠지 -

동작동 국립 묘지에 말 없이 줄지어 서 있는 하얀 묘비들을 생각해 본다. 수목이 무거진 이름 없는 산 기슭에 조용히 잠 들어 있을 젊은 용사들을 생각해 본다.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귀한 목숨을 아낌없이 던져버린 그들, 그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조국 대한 민족이 있는 것이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온 조국의 산천이 건재하고, 그곳에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이 살고 있지 않는가? 조국의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 Memorial Day (Decoration Day)

남북 전쟁 이후의 전사자 무덤을 꽃으로 장식 함. 5월 30일:  
남부 5주에서는 4월 26일, 5월 10일, 또는 6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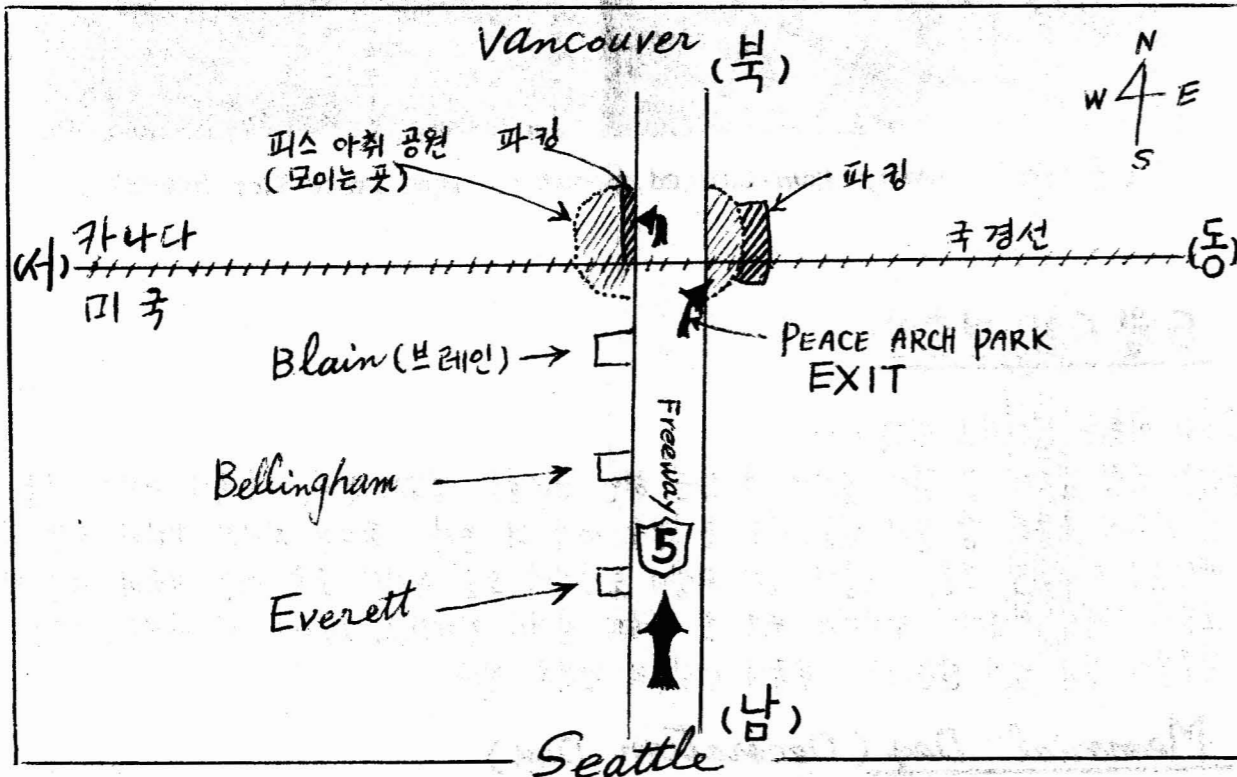
# 씨아틀·벤쿠버(캐나다) 한인 친선 야유회 안내



★ 한인회 연례 행사인 씨아틀·벤쿠버(캐나다) 한인 친선 야유회를 올해 주최측인 벤쿠버 한인회와 의논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교포들이 참석하여 친교하시기 바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 날짜 ; 1977년 7월 2일 (토요일) 11시 반 (씨아틀에서 8시반에 출발할 것)
- 장소 ; Peace Arch Park (피스 아치 공원)  
(미국·캐나다 국경선에 있음. 약도 참조)
- 프로 ; ① 배구 경기 (1시간)  
          ② 축구 경기 (40분)  
          ③ 부인 터치볼 경기 (30분)  
          ④ 아동 경기 (30분)  
          ⑤ 노래 자랑 (30분)  
          \* 단체 경기 및 노래자랑은 모두 씨아틀 대 벤쿠버 대항전이며 종합 성적이 우수한 편이 트로피를 차지함. 개인상도 있음.  
          \* 노래자랑에 출전을 희망하는 분들은 미리 한인회 임원들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 ; 각자 준비 (충분하게) \* 독신자와 학생점심은 한인회에서 준비함.
- 영주권·패스포드 지참할 것.
- 차편이 필요한 분은 한인회로 연락할 것.
- 씨아틀에서 목적지까지는 약 3시간 소요됨.
- Freeway ⑤로 계속 북쪽으로 Vancouver까지 가면 됨

(약도)



## 학부형이 보는 이중언어 교육 허 권

5월 초 이중언어 교육이 시행 되고 있는 Seattle 교육구의 몇 학교를 방문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앞날을 생각하여 꾸이고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이민 역사가 짧은 우리들에게는 더욱 더 교육이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더우기 낯설고 물설은 이 땅에 처음 이주하여 언어의 장벽으로 우리들의 자녀가 지진야가 되어 버린다면 전형적인 전인적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어렵게 되므로 언어의 장애로 교육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중언어교육이라는 교육 제도가 있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학교에서 수업중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수업내용을 모르고 지나친 다음 뒤늦게 수업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등 우리의 어린이들이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성장 발육에 지장을 가져 오는바,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하루 빨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따라 갈수 있도록 하는 교사가 학교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사회가 다 같이 참여하여 협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면 현재의 이중언어 교육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의 이중언어 교육은 그 목적의 한 부분인 지진야를 구제하는 치료교육(Remedy Education)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중언어 교육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대로 두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운다는 말이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뇌의 발달, 사고력의 증대, 이질문화의 이해 등 여러 가지 이로온 점이 많은 것이다. 미국에서는 스페인어 계통에서 처음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다시 이번에 Asian에 시험 실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는가가 연구의 과제라 하겠다. 교사의 절대수를 확보하는 문제, 교사의 자질 향상, 학부모들의 참여, 인식 부족에서 오는 불협조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미국에 이민을 와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중에는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이 많은것 같고 자기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어떠한 교사에 의하여 어떻게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진 분이 또한 많지 않은것 같다. 부모님들이 바쁘고 고열은 직장생활을 하기때문에 그런것 같다. 미국에 올 때는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이 훌륭한 미국 교육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 틀림 없다. 과연 지금 우리 아이들은 훌륭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선생님들은 과연 우리가 바라는 훌륭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우리의 한국 교사가 훌륭한 자격을 구비하고서 미국 교사들 보다 더 잘 가르치고 있는지? 이중언어 교육이란 명칭 아래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든 학부모들은 같은 관심으로 보지 않으면 안될 줄 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귀한 자녀들은 한국에서 받던 더 못한 교육을 받으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기 쉽다. 자녀를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나면 어느 시기에 가서는 건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 모르는 것이다.

### ★ 축구 유니폼 마련 (한인회)

7월 2일 벤쿠버와의 친선 축구 경기를 앞두고 김형선 한인 회장은 선수들이 입을 유니폼을 마련 하겠다고 한다. 토요 축구회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연습중인 별칭은 약 20명 정도라고 하며, 씨아틀 대표 선수로 경기에 출전 할 사람은 토요 축구회로 연락 바라고 있다.

### ★ 와싱턴주 한국 상공회의소 발기

씨아틀과 타코마 지역의 실업자들은 지난 5월 26일 와싱턴 프라자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한국인 상공회의소를 발족 시켰다고 하는데 이날 모임을 주최한 최동광, 임원 선거가 있었으며 한인회장의 추천이나 말도 있었다고 한다. 이사 9명도 선출 하였으며 회장에는 전 재봉사가 선임 되었다고 한다.

# News

## ● The Reverend John L.F. Slee (Jack Slee)

한인회와 회장의 고문으로 임명 되었습니다. 이분은 주정부 Olympia에 있는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에 근무하며 또 life/work이란 조직체의 life and work therapist임. 한인회를 위하여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Jack Slee has been appointed as an Advisor to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Jack is working for State's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in Olympia and for life/work as life and work therapist. Rev. Slee is helping our Korean Community in many ways.

## ● Mr. Gordon S. Clinton

한인회 및 회장의 법률 고문으로 임명 되었습니다. 클린톤씨는 전 씨아틀 시장을 역임한 분이고 한미 무역조합의 이사이며 한국과 한국인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분이며 여러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씨아틀에서 이름난 CLINTON, FLECK, GLEIN & BROWN 법률회사의 Senior partner (선임변호사)입니다.

Mr. Gordon S. Clinton has been appointed as Legal Advisor to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nd to the president. He is very much interested in the Korean Community and in Korea, and is helping our Association in many ways.

다음 기회에 고문 꺾분을 또 소개 하겠습니다. 고문을 두는 이유는 우리가 미국에 사는 이상 도움을 받을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것이며 한인 사회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 ● 「토요 축구회」소식

지난 4월에 조직 출발한 씨아틀 「토요 축구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부터 모여 약 2시간 동안 푸른 잔디의 UW 운동장을 뛰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 약 10명으로 출발한 이 모임은 주무 권 영길씨, 코치 이 수호씨를 주축으로 매주 회원이 증가, 이제는 20명 이상이 모여 두 팀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6월 중순경 타코마팀과의 친선 경기, 7월 2일 밴쿠버(캐나다)와의 친선 경기를 앞두고 팀 구성을 조직화 하고 있는데 소질과 취미가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가 있다.

계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들은 5월 26일 밤 한자리에 모여 여러 문제를 의논 하였다. 내년 봄에 가서는 교포 학생들(중·고)을 위한 팀도 발족 시키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연락처; (낮) 464-6990 권 영길씨  
(밤) 762-2423 이 수호씨

## ● 장한 어머니 김 수분·노 순연 여사

5월 7일 Wood land park에서 있었던 어린이 어머니 날 행사에서는 6남매를 사회인이 되기 까지 홀로 키워 낸 김 수분 여사(64세)와 형제를 또한 훌륭히 키운 노 순연(57세) 여사를 장한 어머니로 뽑아 시상하고 노고를 치하 하였다.

## ● 김 형진 회장 밴쿠버 한인회 방문

김 형진 한인회장은 지난 5월 7일 밴쿠버 한인회를 방문, 7월 2일 개최 예정인 씨아틀·밴쿠버 한인 야유회 관계를 세부적으로 의논하였다.

지금 밴쿠버에는 약 3000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는데 매우 협조적이고, 단결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이번 7월 2일 야유회때 씨아틀 교민들이 많이 참석하여 밴쿠버 교민들과 친선을 도모하기 바란다 김 회장은 말 하고 있다.

## <지상 설교>



## 신앙으로 보는 우리 이민

(히 11:8~12)

김 동협 목사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75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서, 여러가지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을 목표로 삼고 생활한 결과 시련과 역경을 신앙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실을 성경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민 역사는 오래 되지 않았지만 매년 5만여명씩 외국으로 진출하여 우리 재미 교포만도 큰 30만이라고 하는데, 20세기 말에 국제무대에 많이 진출하게 된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포들의 경제적 여건 및 지식 수준을 생각 할때 30만이 국내 인구 1천만과 대등하다는 것을 어느 신문에 논한것을 보았습니다. 명실공히 우리 교포들의 사명은 이 시대의 존망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제심 자각하여, 힘쓰고 노력하여 하나님의 큰 섭리를 성취하는 역군이 되어야지, 만일 시기, 질투, 안일 무사로 자기만 아는 정신적 세계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면 국제 사회에 불필요한 것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으로 부터 버림 받는 민족이 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포사회에 구멍가게 보다 더 많은 교회가 난립 되어 화제의 대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는 우리 교포들을 구원 시키어, 이 시대의 역사적 역군으로 훈련 시키기 위해 교회가 서로 선의의 경쟁으로 전도에 힘쓰는다고 생각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교포들이 방향전환 되면 기드온의 300명 군대처럼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사회에 빛을 비추게 될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 교포들 가정애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 ~ 일상 생활 영어 ~ (기초편)

- My NAME IS ... (내 이름은...)
- WHAT IS YOUR NAME?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 I AM KOREAN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 I SPEAK ENGLISH A LITTLE. (나는 영어를 조금 합니다)
- PLEASE SPEAK SLOWLY. (천천히 말해 주십시오)
- PLEASE DRIVE SLOWLY. (천천히 운전해 주십시오)
- PLEASE COME IN. (들어 오십시오)
- WOULD YOU LIKE TO HAVE A CUP OF TEA (COFFEE)? (티(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 DO YOU TAKE SUGAR AND CREAM? (설탕과 크림을 하십니까?)
- ONE SPOON OF SUGAR PLEASE. (한 숟갈의 설탕만 타십시오)
- NO CREAM. (크림은 넣지 마시고)
- COULD YOU LET ME OFF AT — ? (—에서 내려 주시겠습니까?)
-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 LOOK OUT. (조심 하시오)
- Running a fever (열이 나다)
- HE IS TAKING A TEST (그는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 IS IT A KNIFE? (칼입니까?)
- THEY NEVER DRINK MILK. (그들은 결코 우유를 안 마십니다)
- THE LETTER IS FROM KOREA. (한국에서 온 편지입니다)

# 침술의 상식 (針術의常識)

침술사 최 창하

침구치료는 동양의학상 일찍 아주 삼악이라 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한 유구한 역사와 침구요법을 어떤 이는 원시요법 또는 미신이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음은 한심한 일이다. 고대 명의로 전하여 오는 화 태약도 침구요법에 의하여 신의라 칭하는 것이다.

과연 침구치료는 별의 허설에 의거 모험성극의 과오임이 없이 일침중혈이라든가 기사회생이라하는 과언이라 아니 하였나. 현재 침구치료학은 세계각국에서 연구하고 있다. 특히 일본, 독일, 프랑스에서는 활발히 연구중이다. 우리 한국도 시대조류에 따라 비방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명화대 한의과에서 침으로 마취시켜 맹장수술을 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다. 한국에서 과거의 예를 보면 굵고 투박한 동침을 사용 함으로 힘이라 하면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만큼 겁을 주고, 한번 치르면 아프기 이를대 없었다. 그런 과거로 인하여 지금도 치를 받아보지 않고 말만 듣는 사람은 누구나 멀리 하려고 한다. 지금 침은 일본식으로 아주 가늘고 예리하여서 시술을 받아도 침이 피부에 들어 갔는지조차 문간 못할 정도이다. 허준 선생이 쓴 '동의보감'에 동양의학에서는 제일 좋은 의학서이면서

도 신의학이 들어오면서 버리고 연구하지 않아 우리 한국은 뒤떨어졌다. 일본은 '동의보감'을 선용하여 많은 신 의학박사들이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장려하여 지금은 침구요학 전문학교가 도처에 있으며 국가에서 면허증을 발급하여 많은 침구사들이 활약하며 침시술에 대한 분음이 대중화 되어 많이 이용 함으로 치료에 대한 자심사가 대중잡지에도 자주 발표되고 있다. 우리 한신들은 침이라면 그저나 맞고 후 시술에서 큰 고통을 겪기거나, 출잔이나 사주교 담배값이나 주는 정도였으니 누가 연구하려 시술에 전념하겠는가?

게다가 사는 우리 근도중에도 도령생각하고 그저나 시술해 주면 하는 분들이 여러 있음을 한심한 일이다. 더욱이 시술이 돈인데 우리 한장 같아 개회하는 수공도 큰 고분씩 받는 세상인줄 모르는 모양

이다. 우리 한의학계도 과거를 살펴보면 미술가, 시인, 예술인들이 판로가 없어 구차한 생활을 면치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오늘날 쪼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중공에서는 옛부터 많은 이들이 연구하고 시술발전하여 지금은 각 촌, 리 단위로 중학 졸업 정도의 학식을 가진 사람에게 교육시켜 27가지의 간단하고 많이 생기는 병을 치료한다고 한다. 그 이상 심한 병자는 군, 도,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한다. 우리 한국에서도 묘사 이 이민 오는 사람, 국내에서 봄이 일어 많은 이들이 수습하고 있는 것 같다. 2, 3개월 배와 보았자 치료를 받을만한 상식은 되어도 시술자로서는 부족하다고 본다. 국내에서도 침에 대한 인식이 있는 부대나 연대장들이 필요성을 느껴 학사관들을 교육받게 하는 것을 보았다. 군인들이 훈련을 받다가 다친다든지 뼈이면 군의관 보다 침으로 속히 완쾌됨을 아는 모양이다.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치면 즉효는 역시 침이라야 속함을 어느 운동 선수도 잘 알 것입니다. 최근 세계 탁구대회때 영국 선수가 요통(디스크)으로 출전 포기 상태에 있는 것을 중공의사가 침으로 치료해 줌으로 거뜬히 나아 승리했다고 여러 신문에 보도 됨을 보았다.

다음에는 침구치료의 적응증에 대하여 기술하려 한다.

## - 알 림 -

### ★ 한인회 임원회

한인회 임원회는 앞으로 매월 2째 주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하였다고 김형진 회장이 말하였다. 시간은 오후 6시 라고 하며 장소는 West Seattle Royal Fork 이라 한다.

### ★ 박암씨 이사

박암씨 (한국 예술협회)와 박유철 씨는 6월 10일경 12528 22ND NE, Seattle, wa. 98125로 이사 함.

## ★ 이중언어 교육 학부형회 안내 ★

이중언어 교육 학부형 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오니 많이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모두 한국어로 진행 될 것입니다.

- 날짜 ; 6월 8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 ASAMERCER JUNIOR HIGH School (1600 S. Columbian Way) 도서관
- 참가자 ; 학부형, 및 관심 있는 분들, 교사, 중·고교 학생
- 76, 77 학년도 마지막 학부형 회입니다.
- 안전 10이중언어 교육과 교사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
  - ② 학부형들의 자진 수업 지도, 문화소재, 지역사회 전화 안내 등.
  - ③ 학부형들에 대한 영어 강좌, 학부형들의 효율적인 뒷받침, 이에 따른 보람.
  - ④ 학부형과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
- 당일 차편이 필요한 분은 다음으로 연락 바람.
  - S.W 지역 (762-2423 이 수호씨)
  - " (762-4519 오 수당씨)
  - " (938-0838 김 준영씨)
  - 4운 타운 지역 (624-9442 허 권씨)

## ★ 타코마 동양원 식당 신장 개업 ★

- 12822 PACIFIC HIGHWAY S.W. TACOMA, WA. 98499
- 전화 ; 584-9855 584-8535
- 대표 ; 문 추아

## ★ 허 권씨 학부형회 회장에 뽑힘 ★

지난 4월 28일에 열린 4개국 이중언어 교육 학부형회에서 허 권씨는 새 회장에 되신 되었다. 4개국 이중언어 교육 학부형 임원회는 한국, 중국, 필리핀, 사모아 대표 4명씩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생각 좀 해 봅시다

◎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아파트의 경우, 복도나 남의 집 문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큰세 몰시다. 안면 방해를 되지 않아야겠지요?

◎ 어머니 날이 지나 갔군요. 미국에 이민을 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어머니들을 잘 위로해 드려야겠지요? 그런데 젊은 어머니들 보다도 늙으신 어머니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연만 하신 어른들은 즐겁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직장에 나가 일도 할수 없는 처지에 있는 연만 하신 부모님의 입장을 - 그분들의 심정을 - 그분들의 생활을 젊은이들은 얼마나 이해 하고, 위로해 드리고 있는지요? 그분들의 외로움을,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 어느 직장 애인데, 큰세 몰시다. 창피해서 말도 하기 싫지만요. 한국 사람끼리 통역을 세워놓고 싸움을 하였다니, 아이구 맙소사.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 선물꾸러미야 반갑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데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을 얻기 위해서, 혹은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가 주어진다 하면 어떨까요? 자유어떻지요? 치사스런 자유가 아닐까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받고도 부어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치한 인간이군"

### 자동차 바디 공장

J & P  
ORIENTAL AUTO BODY SHOP  
2336 S.W. Spokane St.  
Seattle, Wash. 98106  
(206) 935-9008

Res. 246-8786    경영주: 배 윤권

詩

# 산 길을 걸으며

이 수 호

하늘 아래  
한 마리 작은 짐승이 되어  
한 줄기 바람이 되어

밀물 같이 밀려 오는  
기다림과 그리움, 고독 같은 것  
하늘 높이 하늘 높이 공을 차 올린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빈 들에서 번민의 땀 흘리는 모습  
골고다 언덕의 초췌한 얼굴이여

어찌다 나는 보석공이 되었지만  
내 곁에 그대 살아 계시고  
헨델, 칸트, 릴케의 나직한 대화가 있어  
산길을 걸으면서 마음을 달랠다.

어느 날  
햇살 아래 한 방울 이슬처럼  
조용히 집을 떠나면  
나에게는  
서너평 땅으로 족하리라.

<중도 만나면서 소도 만나면서>  
오늘도 나는 산 길을 간다.

## 한국학교수직 존속요구

(시애틀) 워싱턴대학교 한국학생들은 16일 하오 한국문학 교수직을 없애려는 학교 당국의 방침에 항의, 장장 3 시간동안 대대적인 교내시위를 했다.

시위대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생회관 및 문리과대학 본부가 있는 퍼넬로드를 앞에서 3개국어로 된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한편, 한국학의 중요성과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지적한 유인물도 살포했다.

이날 시위엔 60여명의 한국학생의외, 동아시아어과 소속 미국학생 10여명도 참여했으며, 다수의 외부 한국인 사들도 나와 이들을 성원했다.

이들 한미대모학생들은 하오 2시 학교 중앙광장앞에 집합, 메모를 정리한후 시위대장 이영인군(회계학과 4년)

의 지휘로 학생회관 및 문리대 본부 건물 앞으로 이동하며 시위했다.

이들은 「미국 제일의 한국학 프로그램을 훼손말라」 「한국학을 존속하라」 「학문의 다양화는 어디있는가?」 등 한국어, 한문, 영어로 된 20여개의 플래카드와 피켓을 흔들는 한편 「백크만은 물러가라」 등 구호도 외쳤다.

이날 데모는 대학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시애틀 타임스 및 ABC-TV 등 주요보도기관들도 나와 취재했다.

대모학생들이 문리대본부 건물앞에서 시위를 한 이유는 시위의 표적이 조지 백크만문리대 학장일뿐만 아니라 이날 하오 3시30분에 학장자문위원회가 한국문학 교수직에 관한 문제를 이 건물 회의실에서 논의했기 때문이다.

대학원 학생 5명 학부학생 4명으로 구성된 9인위원회에 의해 사전에 치밀히 준비된 이 데모는 별 사고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워싱턴 대학교에서 한국학생들이 데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데모는 지난 13일 저녁 60여명의 학생, 한국문학 교수직 존속투쟁위원회장부 및 관계 미국인 학생들이 참석한 연석회의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

- 5월 19일자 한국일보 보도
- 조 병우 통신원 취재 -
- ← 데모하는 학생들



## • Job Bulletin (사람구합)

1. 시애틀 교육청의 Commission for Sex Equity 자라에 봉사 할 분 연락처; Ms. James. 723-4784
2. 시애틀 교육청 Citizens Commission on Bilingual Education - 회장대신 봉사 할 분. 한인 회장에게 연락 바람.

## 전화 번호 안내

### Easy Reference List

<b>Police and Sheriff</b>	Seattle	911
	(Emergency Only)	
경찰서 <범죄신고>	King County Sheriff	344-4080
<b>Repair Service</b>		
전화고장 신고	Dial	611
<b>Fire</b>	Seattle	911
소방서 <화재신고>	King County	362-2344
<b>Ambulance</b>	Clay Lacy	623-2500
	Perimeter S.	762-4210
	Kent	854-1144
	Renton	226-6170
	Issquah	392-6444
	Bencon Hill	623-2500
	Ballard	322-0330
	Bellevue	454-3200
	N. Seattle	322-0330
구급차 <긴급환자>	South King County Area	226-1020

## 헨리 장 여행사

9002 12th Ave. N.E.  
Seattle, WA 98115  
(206) 523-7057

- \* 단체 모국 방문
- \* 국제 국내 비행기 표
- \* 민원 서류 (교포 여권, 여권 연장) 배부
- \* 각종 서류 작성, 수속 대행

## Henry Chang Travel Service

### \* EMPLOYMENT SERVICE

Civil Service  
Seattle, Civil Service ..... 625-2631  
Federal Job Information Center . 442-4365  
Minor's Work Permits ..... 464-6800  
Unemployment Compensation ..... 464-6080  
Washington State Employment General 464-7697  
Employment Opportunity Center ..... 622-0460

### \* CUSTOMS & IMMIGRATION

Immigration General Information . 442-5956  
Passport Information ..... 442-7941

## - 알 림 -

1. 한인회 사무실 이전  
한인회 사무실을 다음 주소로 옮겼습니다.  
612 6th Ave. S  
Seattle, Wa. 98104  
전화는 6월 중으로 통째 됩니다.  
한인회의 어려움을 돕고자 SPENCER KIM씨 사무실을 제공 하신것을 감사 드립니다.
2. 한인회 모금 (Fund Raising Committee) 위원회 회장으로 SPENCER H. KIM씨 봉사 하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3. 국제지역 Summer Festival  
• 6월 18일, 1977, 토요일 1시 - 2시 30분  
• 한국 고전 무용 2:15 ~ 2:30 사이  
• 장소 - 시애틀 시내 중국 공원 (한글어날협회) (Hing Hay Park) 북동쪽

### 한인회비 납부를 요망 합니다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한인회 운영을 위하여 교포 여러분의 자발적인 회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비는 적은 액수이지만 10불 20불이 모이고 모여서 큰 사업을 이룬다는 것을 생각해서 성의 있게 한국인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발행되는 한인회보를 받으시는 교포들의 성의 있는 협조를 바라며, 한인 봉사 센터, 설립 등 할 일이 많은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 사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적은 성의라도 보여 주시면 한인회 운영이 잘 진행 될 것입니다.

회비는 수표를 이용 하시기 바라며 다음 양식을 기재 하여 동봉 해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한인회비	<input type="checkbox"/> 건축기금	<input type="checkbox"/> 운영 기부금
이름		
주소		
전화		
금액		

안에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보낼 곳: KOREAN ASSOCIATION  
P. O. Box 24992  
Seattle, Wa. 98124

**남서 지역**

부동산

주거 아파트 건물      식당 상점 토지

DEL BIANCO REALTY Inc.

455 1st St. Seattle, Washington 98101

진 김  
JEAN KIM  
Associate

(206) 932-1515

Res. (206) 932-3595



###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계속) (5/28 현재)

- 38. Auboy Aramaki ..... 10 불
- 39. 김 원찬 ..... 10 불
- 40. Shim, Louis ..... 10 불
- 41. 전 기수 ..... 10 불
- 42. Chon, Byun Taik ..... 10 불
- 43. 한 상열 ..... 5 불
- 44. Kim, Regina ..... 10 불
- 45. 허 정순 ..... 10 불
- 46. 김 일천 ..... 10 불
- 47. 배 동한 ..... 5 불
- 48. Baskerville, Tahn... 10 불
- 49. Kim, Paul G ..... 10 불

### 건축 기금 납부자

Baskerville, Tahn... 10불  
(정 단)

😊 집 없으면 집을 사시고  
😊 집 있으면 집을 파세요

**김 현 중 부동산** 여사  
(FRANK) HYUN CHOONG KIM

- 무료봉사: 출산 이사를 위한 케드링
- 무료상담: 정확한 가격을 드립니다
- 취급종류: 주택·아파트·호텔·도지  
                  ·점포·기타사업 투자안내

Phone: SEATTLE RES. 774-7828, BUS. 774-7828, 525-7200  
Tacoma: 437-3112

**아리랑 바**

Open: 12:00 AM to 2:00 AM

**BAND PLAY**  
Tue through Sun  
9:00 PM - 2:00 A.M

아리랑 전속 밴드는 흥겨운 음악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728 Pine Street • Seattle, Washington 98101      전화: 345-9740  
대표 남성 삼



### 안녕하십니까?

미국 까지 오셔서 고생 되시며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족들의 보다 안정된 생활과 자라나는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야나시겠습니까? 저는 교포 사회에 보탬을 시작하면서 파는 것에만 지우치지 않고 보증을 현명히 이용하시어 장래의 안정된 생활의 뒷바침을 위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상담자가 되겠습니다. 언제든 의논하실 일이 있으면 다음 전화 번호로 불러 주십시오. 상담 내용은 개인성을 보장해 드리며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나 책임을 지겠습니다.

뉴욕 생명보험      김    철    준    拜

SEATTLE: 4121 Seattle-First Nat'l Bank Bldg. Seattle, Wa. 98154  
Tel. 363-3704 Res. 232-9207

TACOMA: 6415 Steilacoom Blvd. S.W. Tacoma, Wa. 98499  
Tel. 588-0333

**생명보험 · 저축생명보험**  
**교육보험 · 건강 보험**  
**주택및은행음자보험**

### =원고 모집=

한인 회보에 실을 원고는 날짜에 제한 없이 수시로 접수 하여 성의껏 실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포들 혹은 학생들이 투고를 바랍니다. 한인 회보는 매월 시애틀, 타코마 기타 도시에서 약 1200부 발송 되고 있습니다.

### <투고 할 비용>

- 시      ○ 수필      ○ 일기      ○ 생활수기.
- 만화      ○ 논설      ○ 미담      ○ 생활정보.
- 건강      ○ 교육적인 내용      ○ 기타
- 인물소개

### <투고 할 주소>

Soo Ho LEE  
6935 DELRIDGE WAY S.W #209A  
Seattle, Wa. 98106  
전화: 762-2423  
(차 편집인, 5월 1일자로 위의 주소로 이사 하였습니다)

### =엮고 나서=

허둥지둥 이사를 하고 나서 정리를 하니 한 달이 후약 가 버렸다. 이제는 원고 청약을 하여 손에 원고를 받을 때 까지 계속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지면이 모자랄 때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 지면이 남을 때는 할 수 없이 작품을 급히 만들 수 밖에 도리가 없다. 엉터리 편집인이다. 알지만 어찌랴? 어느 정도 좋은 산속이나 해변의 어느 마을에서 시를 쓰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인네가 있어, 매달 한 편씩 시를 보내 준다면 내 하루에 두번씩은 덤이 주리라. 꿈 같은 꿈이지...

고령계를 낚는 게 잡이, 조개 잡이, 풀, 미역, 낚시, 고사리... 아내의 성화를 못들은 채 은능... 대답하기에도 지쳤다. 가기는 가야 할 텐데... 아이고 맙소사 미국 시제는 왜 이리 빨리 가노. 내일은 타코마를 달려야지?


**ARROW REALTY**

1122 EAST 72nd STREET., TACOMA, WASHINGTON 98404

**부동산 매매**

가옥      식 당      상업건물  
            토지      모델  
            주택      모델

김 일 영      Off: 475-6262  
IL YONG KIM      Res : 845-2236



최초의 Washington 주 동양인을 위한

**황제 침술원** (백 세현) 개원 안내

- 최신 전자 진단기·치료기 구비,
- 각과 진단·약처방·치료·왕진도 가함.
- 서울 대학교 출신. (B.S)
- CA. 면허 # AC 365.
- CA. 공인 경력 14년 10개월.
- 국제 침·구·의학 협회 정회원 #195.

<연락 처>

- 주소 ; 3001 S.W GRAHAM ST.  
#579.  
Seattle, WA. 98126  
(High Point 지역)
- 전화 ; (206) 937-7115

<여름철 특별 할인> **엔진 튜닝**

- 8 Cylinder — \$ 45.00
- 6 Cylinder — \$ 40.00
- 4 Cylinder — \$ 35.00
- 엔진 스팀 세차 — \$ 10.00  
(부속·노임 포함 된 값입니다)

open 8-7 Mon.-Sat. 525-9197  
9500 Roosevelt Way N.E.

**A.K. Motors**

김치

**한 국 집**

Korean Food Production  
Grocery Store

우아지마야 앞 514 6th Ave S.  
Seattle, Wa. 98104

PHONE ; 682-2992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SHINGTON 98124

